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봄철 졸음운전 예방 인천지역 민관 안전 캠페인 전개

2025. 5. 23.

-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인천시청·남동구청·인천논현경찰서 등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 **지난 3월 '우회전 일시정지' 민관 합동 캠페인 이어 봄철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 **쿠팡·CLS "현장 밀착형 안전 캠페인, 분기별로 정기 운영하며 지속 확대해 나갈 것"**

2025. 05. 23. 서울 -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배송기사의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쿠팡과 CLS는 지난 22일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2캠프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시청, 남동구청, 인천논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졸음운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오후1시~4시)에 맞춰 진행됐다. 쿠팡과 CLS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송기사에게 졸음 예방을 위한 △졸음껌 △지압봉 △음료 △예방 안내 책자 △에코백 등을 제공했다.

캠페인을 통해 배송기사들은 배송캠프 현장에서 숙지해야 할 교통안전 수칙과 안전운행의 중요성을 교육받았다.

이번 활동은 쿠팡과 CLS가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교통안전 캠페인의 연장선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인천6캠프 배송기사 대상 '우회전 일시정지'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교차로 보행자 사고예방 교육, 안전수칙 안내 및 예방물품 지원 등이 함께 이뤄졌다.

쿠팡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밀착형 안전 캠페인을 분기별로 정기 운영하며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배송기사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지역 사회 전반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